



## 장애유아의 부모 관련 연구 동향 분석 - 국내 학술지를 중심으로 -\*

김 건 회\*\*

**Analysis of Research Trends Related to Parents of You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Kim, Keonhee\*\*

### ABSTRACT

**[Purpose]** This study analyzes the trend in research related to parent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through this, aims to suggest a direction for research to seek support for parent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in the future. **[Method]** According to the research purpose, 69 domestic journal papers published from 2013 to 2022 were selected, and the selected papers were divided according to year, published journal, and research type, and analyzed again by research subject and research subject. **[Result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between 2013 and 2016, many papers related to parent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were published, but after 2018, it was found to be low. Second, experimental research, investigational research, correlational research, and qualitative research were used in the order of research methods, and there were few papers using literature research, case studies, causal comparison research, and developmental research. Third, in the case of research topics, there were relatively many studies related to parents' parenting efficacy, parenting stress, and parents' happiness. In the case of experimental studies, parent education programs, play support, and language intervention were frequently used as independent variables, and social interaction, parenting efficacy, or parenting stress were used as dependent variables. Qualitative research has more diverse subjects than other studies. Looking at the subjects of the study, even in all 69 papers, most of the cases were either mother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participating alone or fathers participating together. On the other hand, only fathers participated in the study alone in only 5 cases (7%). Depending on the type of study, there were cases in which parent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special teachers, specialists, children with disabilities, mothers without disabilities, and fathers without disabilities were included in the study, but there were few. **[Conclusion]** In order to better understand the current situation related to parent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specify the problems to be solved,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research topics and areas and diversify the types of research. In addition, it is required that the subjects of the study be centered on mothers and include not only fathers but also related experts such as teachers and therapists.

**Key Words** : You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Mother, Father, Parents, Trends

\* 본 연구는 2019년도 대구대학교 학술지원비에 의해 지원된 연구임.

This work is supported by 2019 Daegu University Grant

\*\* 교신저자, 대구대학교 유아특수교육과 교수(E-mail: mykhk@daegu.ac.kr)  
Dept. of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Daegu Univ.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부모는 유아의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유아의 발달이 또래들과 같은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경우는 물론 발달이 지연 되는 경우에도 부모는 유아의 상호작용 대상으로서 그들의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백수진, 안성우, 2019; Santos & Mccollum, 2007). 유아와 부모의 상호작용은 유아의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발달에 많은 영향을 주는데, 특히 장애유아의 부모는 장애유아에게 제공되는 여러 가지 중재 프로그램에도 직접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자녀의 발달 촉진에도 영향을 준다(김지은, 최윤희, 2018; 박미정, 정재권, 박경란, 2010; 오혜정, 2018; 제민희, 이병인, 김민성, 2020; Barton & Fettig, 2013; Hyassat, 2016).

그러나 장애유아의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물리적,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이한선, 이경희, 최성규, 2005), 주변의 시선으로 인해 심리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오혜정, 2016). 이러한 물리적, 육체적, 심리적 어려움으로 인해 장애유아의 부모는 심한 양육 스트레스를 받으며, 이 외에도 장애유아의 부모가 양육 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은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난다(안의정, 2015; Waters & Friesen, 2019). 반면, 부모 자신의 행복감이나 삶의 만족감 역시 스트레스나 어려움과 마찬가지로 유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즉 부모가 느끼는 행복감의 정도가 장애 자녀에 대한 양육태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노진아, 박재국, 김은라, 2013; 정계숙, 박재국, 최은실, 서보순, 박희경, 2013)

장애유아의 부모가 겪게 되는 스트레스나 어려움과 달리, 장애유아의 부모가 느끼는 행복감과 만족감은 대부분 긍정적인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친다. 지금까지 발표된 장애유아의 부모와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장애유아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부모 자신과 관련되는 다양한 요인과 자녀 양육을 하는데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들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이러한 것들이 부모 교육이나 부모 지원을 통해서 해결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장애유아 부모의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낮추고, 양육효능감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장애유아의 부모 교육과 부모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강혜원, 박지연, 2011; 안의정, 2015; 오혜정, 2016).

장애유아의 부모 교육과 부모 지원을 적절하게 제공하려면 장애유아의 부모와 관련하여 장애유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인들에 대한 다양한 접근의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부모 자신 관련 요인, 교육 및 양육 방법과 관련된 지식과 기술 요인, 부모의 참여 기회 확대 등과(노진아, 2014) 관련된 교육 현상을 살펴보고 연구하여서, 장애유아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부모에 대한

지원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확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Parette, Meadan, Doubet, 2010).

최근에는 보다 다양한 영역에서 부모들에게 구체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지원이 요구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장애유아의 부모를 둘러싼 장애유아의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변인들을 밝혀내야 하고 부모의 경험이나 부모와 장애유아의 상호작용을 관찰하는 등 다양한 방법의 자료 수집을 통해서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장애유아의 발달 촉진을 위하여 부모들에게 어떠한 지원을 구체적으로 해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자칫 연구의 편향으로 인한 고착화의 우려가 있으므로 연구가 편향되어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다양한 접근을 통해 연구를 실시하여야 장애유아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유아의 부모와 관련된 변인을 밝혀낼 수 있고, 이로써 장애유아의 부모들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연구 동향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장애유아의 부모와 관련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이와 관련하여 연구 동향을 살펴본 연구 사례도 있었다. 곽희연, 김숙향, 이병인(2022)은 연구자가 사용한 단어의 빈도를 조사하여 논문의 특성을 살펴보는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 가족과 관련된 연구의 동향을 살펴본 바 있다. 그 결과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를 위한 교육이나 양육 현황과 관련된 연구보다 가족의 요구나 지원과 관련된 연구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을 밝혔다. 노진아(2014)는 장애영유아의 부모가 참여한 중재 연구들의 동향을 분석하여 국내 연구의 경우, 주로 의사소통이나 사회성과 관련된 변화에 집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다양한 발달 영역에서의 변화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하고, 부모가 참여하는 중재연구들의 방향성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지경과 서보순(2021)은 특수영유아 부모와 관련된 논문들에서 핵심어의 출현 빈도를 조사하여 핵심어들의 연결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특수영유아 부모 관련 연구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키워드를 밝히고, 이들 역시 선행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에서 대부분 빠져 있었던 아버지도 연구 대상으로 포함하여야 할 것을 제안하는 등, 향후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장애유아 자녀를 둔 부모와 관련하여 최근에 이루어진 연구 동향 관련 연구는 연구의 핵심 주제어의 빈도수, 핵심 주제어들 간의 관계망을 통해서 어떠한 주제가 연구 주제로 많이 나타났는지, 또 주제어들 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본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핵심 주제어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연구의 동향을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장애유아 자녀의 부모가 현재 놓여 있는 상황을 이해하고 부모가 겪고 있는 일들이 무엇이며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요구를 필요로 하는지 등의 문제를 탐구하기 위해서는 주제는 물론 어떠한 연구 방법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지도 살펴보아야 한다. 같은 주제라고 하더라도 연구 방법에 따라 탐구하는 부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부모의 양육 경험을 조사연구를 통해서 얻는 결과와 심층인터뷰를 통해서 얻는 결과는 조명하는 것이 서로 다르다. 조사연구는 양적인 자료를 통해 현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부모의 경험에 대한 심층 인터뷰 자료를 통한 질적 연구는 맥락에 근거한 현상의 이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이종승(2009)은 연구의 기능은 교육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사실들을 살펴보고 인과관계나 실천 방안을 찾기 위한 것이며 이를 위하여 다양한 연구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고 하였다. 현장에서의 사실만을 살펴보는 연구인지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혹은 인과관계를 살펴보는 것인지, 조작적 변인을 사용하지 않고 상황에 근거하여 현상을 이해하는 것인지와 같은 다양한 연구 방법은 더 많은 부분에까지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연구 대상자의 내부자적 관점인지 외부자적 관점인지 상황을 배제하고 변인을 조작하여 살펴보는 연구인지 맥락을 중시하는 연구인지에 따라서도 밝힐 수 있는 부분은 달라질 수 있다(성태제, 시기자, 2014; 이종승, 2009; Bogdan & Biklen, 2007).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장애유아의 부모와 관련된 연구의 동향을 연구 방법에 따라 세부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장애유아의 부모와 관련된 연구를 최근 10년간 연도별로 동향을 살펴, 연구 방법별로 세부 항목을 나누어 주제와 연구 대상에 따른 동향도 아울러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장애유아의 부모 관련 연구의 현 시점을 이해하고, 부모 교육과 부모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향후 장애유아의 부모와 관련된 연구의 방향이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제시하는 데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 2. 연구 문제

본 연구 목적에 따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유아의 부모와 관련된 연구의 연도별 동향과 게재 학술지 동향은 어떠한가?

둘째, 장애유아의 부모와 관련된 연구 유형의 경향은 어떠한가?

셋째, 장애유아의 부모와 관련된 연구의 유형별 세부 항목(연구 주제, 연구 대상)의 동향은 어떠한가?

## II. 연구 방법

### 1. 문헌 검색 방법

본 연구는 장애유아의 부모와 관련된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하

여 대상 논문을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선정하였다.

첫째, 한국교육학술정보원(Riss4u), 누리미디어(DBPIA), 한국학술정보(KISS)의 전자데이터 베이스의 상세 검색에서 검색 기간은 최근 10년(2013년에서 2022년)으로 한정하였다.

둘째, 검색 주제는 ‘부모’와 ‘장애유아’로 하였다. 부모의 유사 검색어로 ‘어머니’, ‘아버지’를 포함하였고, 장애유아의 유사 검색어로 ‘청각장애 유아’, ‘지적장애 유아’, ‘정신지체 유아’, ‘지체장애 유아’, ‘정서행동장애 유아’, ‘자폐성장애 유아’, ‘의사소통장애 유아’, ‘건강장애 유아’, ‘발달장애 유아’, ‘발달지체유아’, ‘특수교육대상 유아’를 사용하였다. 그 결과 학술지 논문 84편이 검색되었다.

셋째, 검색된 논문들 중 학술대회 발표 자료, 보고서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으로 한정하였다.

넷째, 검색된 논문 중 논문 제목에서 “영유아”로 표시된 논문 즉, 영아와 유아를 포함하여 연구된 논문은 제외하였고 “장애위험”이라고 표시된 논문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검색된 논문이 장애유아의 부모와 관련된 논문이 맞는지 특수교육을 전공한 전문가 1인과 함께 검토하였다.

위의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69편의 논문이 연구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 2. 분석 기준

분석 기준들은 이병인(2019), 김건희와 김창걸(2013), 조현근과 이병인(2009)의 연구를 참고하여 정하였다. 대상 논문을 연도, 학술지 종류, 논문 제목, 연구 유형에 따라 1차로 분석하였다.

연구 유형에 따른 분류는 학자들마다 다른데, 본 연구에서는 이종승(2009)이 제시한 연구 유형의 분류를 주 근거로 하여 조사연구, 상관연구, 인과비교연구, 사례연구, 실험연구, 개발연구, 문헌연구, 질적연구, 9개의 유형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 논문들을 연구 유형별로 분류한 다음, 각 유형별로 주요 주제에 따라 분석하고 연구 대상이 포함된 연구인 경우, 연구 대상에 따라서도 분석하였다. 연구 유형에 따라 분석된 논문들이 연구 주제별로 어떠한 동향을 나타내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연구 주제의 경우 각 논문의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고 표로 작성하여 목록화하였다. 논문에서 제시된 주요 내용들의 개념들에 따라 귀납적인 방법으로 살펴보아 유사한 내용끼리 묶어서 범주화하여 주요 내용들의 주 흐름을 살펴보았다. 연구 대상별 분석에서는 대상의 유형을 부모, 아버지, 어머니, 장애유아, 교사, 전문가 등으로 분류하여 어떠한 동향을 나타내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단, 변인의 조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실험연구의 경우는 독립변인과 종속변인도 연도별로 분석하여 그 동향을 살펴보았다.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을 목록화하고 각 변인별로 유사한 주제끼리 묶어서 범주화하여 변인에 따른 동향도 살펴보았다.

분석 기준에 따라서 대상 논문들을 분석하고 해당 연도에 빈도와 백분율로 표시하여 연도별 추이를 알아보았다.

### 3. 신뢰도

본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연구자는 특수교육 전문가 1인과 함께 선정된 논문들이 선정 기준에 부합되는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논문 분석 기준에 맞추어 선정된 논문을 개별로 분석하였다. 각자 분석한 결과를 근거로 분석자간 신뢰도를 산출하였다. 분석 결과가 일치된 논문 수를 분석 결과의 일치된 논문 수와 불일치된 논문 수의 합으로 나누었고 그 결과 97.1%의 신뢰도를 얻었다. 분석한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논문들은 함께 재분석하여 분석 결과가 일치되도록 하였다.

## Ⅲ. 연구 결과

### 1. 논문 게재 연도별 동향과 게재학술지에 따른 동향

#### 1) 연도별 동향

연구대상의 논문들을 발표된 연도에 따라 살펴보면 <표 3-1>과 같다.

<Table 3-1> Research Trends by Year

Year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Total
Number of Papers	9	13	9	14	6	2	5	6	3	2	69
Ratio(%)	13.0	18.8	13.0	20.3	8.7	2.9	7.3	8.7	4.4	2.9	100

장애유아 부모 관련 논문들은 2013년과 2017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게재되었는데, 이 기간 동안 게재된 논문은 모두 51편(74%)이다. 이후 2018년에서 2022년까지는 18편(26%)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2013년부터 2016년 사이에 관련 논문들이 많이 게재되었는데, 특히 2016년에 가장 많은 14편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한편, 최근 2021년과 2022년 사이에는 다른 해에 비해 논문게재가 저조했다.

2) 게재학술지에 따른 동향

장애유아 부모 관련 논문들을 게재된 학술지에 따라 살펴보면 <Table 3-2>와 같다.

<Table 3-2> Trends According to Published Academic Journals

Academic Journal	Year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Number of Papers	Ratio (%)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2	2	5	2	3	1	1	2	1	1	20	29
The Journal of Special Children Education		1	2	1	1			1				6	8.7
JOURNAL OF EMOTIONAL & BEHAVIORAL DISORDERS		1	1	1		1						4	5.8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1				1		1		1	4	5.8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ies			1					2				3	4.3
Korea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1	1						1			3	4.3
The study of Education for Hearing-Language Impairments		1	1							1		3	4.3
The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n Developmental Disabilities					1					1		2	2.8
The Korean Journal Child Education		1				1						2	2.8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Persons with Autism					1				1			2	2.8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							2	2.8
Journal of Wellness				1	1							2	2.8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1									1	1.5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1										1	1.5
Journal of Children 's Literature and Education					1							1	1.5
Journal of speech-language & hearing disorders			1									1	1.5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1										1	1.5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1							1	1.5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1						1	1.5
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1				1	1.5
Research on the Human Right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1									1	1.5
Special Education Research					1							1	1.5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and Rehabilitation					1							1	1.5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1									1	1.5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 Educare Welfare					1							1	1.5
The Korea Association of Child Care and Education					1							1	1.5
Food Art Therapy				1								1	1.5
Journal of Holistic Convergence Education									1			1	1.5
Number of papers		9	13	9	14	6	2	5	6	3	2	69	100

장애유아의 부모 관련 논문들은 28개의 학술지에 게재되었다. 이 중 14개의 장애와 관련된 논문을 주로 게재하는 학술지에 52편(75.3%)의 논문이 게재되었는데, 가장 많은 장애유아 부모 관련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는 『유아특수교육연구』로 20편(30%)의 논문이 게재되었고, 다음은 『특수아동교육연구』로 6편(8.7%)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그 외 16편(24.7%)의 논문은 장애관련 논문이 주로 게재되지 않는 학술지에 발표되었는데, 2016년까지는 간헐적으로 게재되었고, 이후에는 거의 게재되지 않았다.

## 2. 연구 유형에 따른 동향

연구 대상 논문들을 연구 유형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Table 3-3>과 같다.

<Table 3-3> Analysis According to Research Type

Research Method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Nmber of Papers	Ratio (%)
Experimental Study	4	1	1	5	2	1	2	4	2		22	31.9
Research Study	3	6	2	1	2	1					15	21.7
Correlational Research	1	3	2	4			1			1	12	17.4
Qualitative Research		2	3	3	1		1	1			11	15.9
Case Study				1				1	1		3	4.4
Literature Review	1	1	1								3	4.4
Causal comparative research					1					1	2	2.9
Development Research							1				1	1.4
Number of Papers	9	13	9	14	6	2	5	6	3	2	69	100

선정된 논문들을 연구 유형에 따라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연구 대상인 장애유아 부모 관련 논문 총 69편 중 가장 많은 22편(31.9%)의 논문이 실험연구 논문이었고, 다음은 조사연구로 15편(21.7%)이었다. 이어서 상관연구 12편(17.4%) 그리고 질적연구 11편(15.9%)의 순이었다. 최근 10년간의 연구 대상 논문들 중 문헌연구는 3편(4.4%), 사례연구는 3편(4.4%), 인과비교연구는 2편(2.9%), 개발연구는 1편(1.4%)으로 이들 연구 유형의 논문은 저조한 편이었다. 한편, 조사연구는 2018년 이후, 문헌연구는 2016년 이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적연구 유형의 논문은 2014년 이후 해마다 비교적 꾸준히 게재되었고, 조사연구와 실험연구는 각각 2013년부터 2016년까지, 2013년부터 2021년까지 해를 거르지 않고 게재되었다. 특히 조사연구의 경우 2014년에 6편의 논문이 게재되어 가장 많았고, 상관연구와 실험연구, 질적연구는 2016년에 각각 4편, 5편, 3편의 논문의 발표되어 다른 해에 비해서 2016년에 이들 연구 유형의 논문이 많이 게재되었다.



### 3. 연구 유형별 세부 항목에 따른 동향

다음은 연구 대상 논문을 연구 유형별로 분류하고, 다시 세부 항목에 따라 분석한 결과이다.

#### 1) 실험연구

장애유아 부모 관련 논문들 중 실험연구 유형의 논문을 독립변인, 종속변인, 연구 대상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1) 독립변인에 따른 분석

총 22편의 실험연구 논문 중 독립변인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은 부모교육 프로그램으로 7편(31.8%)의 논문이 게재되었고, 놀이지원이 사용된 경우가 6편(27.3%), 언어중재가 사용된 경우가 4편(18.2%)으로 그 뒤를 따랐다. 그 외에 긍정적 행동지원, 매개견 활용, 언어중재, 문제해결전략 중심 중재, 부모의 중재 수행 비디오 자기 점검을 독립변인으로 사용한 논문이 각각 1편씩이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독립변인으로 사용한 논문의 경우 2013년부터 2021년까지 꾸준히 연구되어왔으며, 놀이지원과 언어중재를 독립변인으로 사용한 논문도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꾸준히 게재되었다.

독립변인의 경우 2015년을 기점으로 그 이전에는 긍정적 행동 지원과 매개견 활용, 상호작용 중재 등을 사용하였으나, 이후에는 이들 독립변인을 사용한 연구는 없었고, 언어중재나 놀이지원과 같은 새로운 독립변인을 사용한 연구가 계속해서 이루어졌다.

<Table 3-4> Analysis According to Independent Variables

Independent Variable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Number of Papers	Ratio (%)
Positive Behavioral Support	1										1	4.6
Use of Mediated Dogs		1									1	4.6
Interaction Intervention	1										1	4.6
Language Intervention				1	1	1		1			4	18.2
Play Support				1	1		1	2	1		6	27.3
Intervention Centered on Problem-solving Strategies				1							1	4.6
Parent Education Program	2		1	1			1	1	1		7	31.8
Parent Intervention Video Self-Check				1							1	4.6
Number of Papers	4	1	1	5	2	1	2	4	2	0	22	100

**(2) 종속변인에 따른 분석**

실험연구 유형의 장애유아의 부모 관련 연구들을 종속변인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Table 3-5>와 같다. 독립변인에 따른 종속변인의 변화를 살펴보았을 때, 종속변인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은 사회적 상호작용 행동의 변화였다. 사회적 상호작용 행동의 변화만을 살핀 논문이 5편(22.7%)이었고, 사회적 상호작용 행동과 부모의 양육효능감 및 양육 스트레스의 변화를 함께 살펴본 논문은 6편(27.3%)이었다.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 행동과 장애유아의 문제행동을 혼합하여 살펴본 논문이 2편(9.1%)이었는데, 이들 논문을 모두 합하면 13편으로 전체 논문의 절반이 사회적 상호작용 행동을 종속변인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장애유아 어머니의 역량강화, 양육효능감, 양육 행동의 종속변인으로 하여 그 변화를 살펴본 논문이 5편(22.7%)이었고, 의사소통의 변화를 살핀 논문이 3편(13.6%)으로 그다음이었다. 2016년에는 부모의 개별지도 훈련법 시행을 종속변인으로 한 논문도 1편 있었다.

**<Table 3-5> Analysis According to 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s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Number of Papers	Ratio (%)
Social Interaction Behavior	1				2			2			5	22.7
Mix Social Interaction + Parenting Efficacy, Parenting Stress			1	2			1	1	1		6	27.3
Mix Social Interaction + Problematic Behavior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1	1									2	9.1
Mother Empowerment Parenting Efficacy, Parenting Behavior	1			1		1		1	1		5	22.7
Communication	1			1			1				3	13.6
Implementation of Parents' Individual Training Method				1							1	4.6
Number of Papers	4	1	1	5	2	1	2	4	2	0	22	100

**(3) 연구대상에 따른 분석**

실험연구 유형의 논문을 연구 대상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Table 3-6>에 나타나 있다. 실험연구의 경우 장애유아 어머니와 장애유아를 연구 대상으로 한 논문이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지속적으로 연구되어 총 11편(50%)이었고, 장애유아 부모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6편(27.3%), 장애유아만을 대상으로 한 논문은 4편(18.2%)이었다. 장애유아가 연구대상인 경우는 부모가 중재에는 참여하였으나 중재의 결과를 보는 것은 장애유아만인 경우로 논문에서 연구대상이 장애유아만으로 표시된 경우이다. 그리고 장애유아 아버지와 장애유아를 연구 대상으로 한 연구는 최근 10년간 단 1편만 수행되었으며, 장애유아와 어머니와 교사를 연구 대상으로 한 실험연구도 2020년

에 1편이 게재되었다.

<Table 3-6> Analysis According to Research Subject

Research Subject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Number of Papers	Ratio (%)
Parents of Children with Disability	1		1	2				1	1		6	27.3
Mother + Young Children with Disability	1			2	2	1	2	2	1		11	50.0
Father + Young Children with Disability								1			1	4.6
Young Children with Disability	2	1		1							4	18.2
Number of Papers	4	1	1	5	2	1	2	4	2	0	22	100

**(4) 중재 실시 회기에 따른 분석**

실험연구 유형의 논문을 중재 실시 회기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Table 3-7>에 나타나 있다. 중재가 실시된 횟수는 11번에서 15회기 사이가 7편(31.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6회에서 10회 사이가 5편(22.7%)이었다. 30회를 넘어가는 경우는 2편(9%) 있었다. 2016년 이후에 21회를 넘어가는 논문들이 3편(13.6%)으로 나타났다. 그 이전에는 1편(4.5%) 있었다. 실험논문 중 회기를 표시하지 않고 실험 기간만으로 표시한 논문은 1편(4.5%) 있었는데, 6개월간 실험이 진행된 것으로 제시되어 있었다.

<Table 3-7> Analysis According to the Intervention Session

Arbitration Session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Number of Papers	Ratio (%)
1-5 times			1	1							2	9.0
6-10 times				1				2	2		5	22.7
11-15 times	1			3			2	1			7	31.8
15-20 times	3										3	13.6
21-30 times		1			1	1					3	13.6
31-40 times											0	0
41-45 times					1						1	4.5
for 6 months								1			1	4.5
Number of Papers	4	1	1	5	2	1	2	4	2	0	22	100

**(5) 중재 실시 장소에 따른 분석**

실험연구 유형의 논문을 중재 실시 장소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Table 3-8>과 같다. 중재가 실시된 장소는 치료실이 7편(31.8%)으로 가장 많았고, 가정이 5편(22.7%)으로 그 다음이다. 그리고 가정과 유치원이 함께 사용된 경우가 3편(13.6%)이었다. 2013년도에서 2017년도 사이에는 중재 장소가 치료실인 연구가 5편(22.7%)으로 가장 많았고, 가정과 유치원이 함께 사용된 연구는 없었다. 2018년도 이후에는 중재 장소로 가정과 유치원이 함께 사

용된 연구가 3편(13.6%)으로 가장 많았고, 치료실을 사용한 연구는 2편(9.0%), 가정만을 사용한 연구도 2편(9.0%)이었다. 2019년도부터 중재 실시 장소로 가정과 유치원이 함께 사용되는 연구들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Table 3-8> Analysis According to the Place of Intervention**

Place of Arbitration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Number of Papers	Ratio (%)
Treatment Room (Treatment Center)			1	4		1			1		7	31.8
Home	2				1			2			5	22.7
Home + kindergarten							1	1	1		3	13.6
Welfare Center	1			1							2	9.0
kindergarten	1							1			2	9.0
Home + Special School					1						1	4.5
Treatment Room + special School							1				1	4.5
Cafe		1									1	4.5
Number of Papers	4	1	1	5	2	1	2	4	2	0	22	100

**(6) 중재 실시자에 따른 분석**

실험연구 유형의 논문을 중재 실시자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Table 3-9>와 같다. 연구자가 중재를 실시한 경우가 14편(63.6%)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중재를 실시한 연구는 4(18.2%)편, 연구자와 어머니가 함께 중재를 실시한 연구도 4편(18.2%)이었다. 장애유아의 부모 관련 실험연구들은 연구자들이 중재를 실시하는 경향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Table 3-9> Analysis by Intervention Provider**

Intervention Provider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Number of Papers	Ratio (%)
Researcher	1		1	5			2	4	1		14	63.6
Mother	2	1			1						4	18.2
Researcher + Mother	1				1	1			1		4	18.2
Number of Papers	4	1	1	5	2	1	2	4	2	0	22	100

**2) 조사연구**

**(1) 주제에 따른 분석**

조사연구 유형의 논문을 연구 주제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Table 3-10>과 같다. 조사연구는 모두 15편이었는데, 연구 주제를 9가지로 범주화하였다. 조사연구 15편을 연구 주제에 따라 나누어 보면,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양육스트레스 관련 연구가 4편

(26.6%)으로 가장 많았고, 부모의 행복감과 관련된 조사연구는 15편 중 3편(20.0%)이었다. 그리고 특수교육지원센터와 관련된 조사연구가 2편(13.3%) 있었다. 그 외에는 발달지체유아의 수 개념 지도, 초등학교 선택 기준, 발달지체유아 권리 존중 등 다양한 주제로 연구되었다.

<Table 3-10> Analysis According to the Topic of the Research Study

Subject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Number of Papers	Ratio (%)
Parenting Efficacy, Parenting Stress		2		1	1						4	26.6
Parental Happiness	2		1								3	20.0
Special Education Support Center Related	1	1									2	13.3
Plan to Revitalize Compulsory Education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1									1	6.7
Investigate Variables that cause Stress in Children			1								1	6.7
Number Concept Map for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elays		1									1	6.7
Parents' School selection criteria when entering Elementary School		1									1	6.7
Respect for the rights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elays					1						1	6.7
Awareness of language abilitie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1					1	6.7
Number of Papers	3	6	2	1	2	1	0	0	0	0	15	100

(2) 연구 대상에 따른 분석

조사연구 유형의 논문들을 연구 대상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Table 3-11>과 같다. 조사연구 유형의 논문 15편 중 장애유아의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한 논문은 3편(20%)이었고, 장애유아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연구 대상으로 한 경우도 3편(20%)이었다. 즉, 부모만 연구 대상인 논문이 모두 6편(40%)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 교사를 포함한 연구는 3편(20%)이었고, 그 외 부모와 교사 및 재활사까지를 포함한 연구, 어머니와 교사 그리고 장애유아 본인을 포함한 연구도 각 1편(6.7%)씩 있었다. 또한 장애유아의 아버지와 비장애유아 아버지를 함께 연구하거나, 장애유아의 어머니와 비장애유아의 어머니를 함께 연구 대상으로 연구한 논문도 있었는데, 각각 1편과, 3편으로 장애유아의 부모와 비장애유아의 부모를 함께 연구대상으로 한 논문은 총 4편이었다. 이 경우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경우보다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경우가 더 많았다.

<Table 3-11> Analysis According to Research Subject

Research Subject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Number of Papers	Ratio (%)
Mother of Young Children with Disability				1	2						3	20.0
Mother + Father	2	1									3	20.0
Parents of Young Children with Disability + Special Teachers		3									3	20.0
Parents of Young Children with Disability + Special Teacher + Speech Therapist						1					1	6.7
Young Children with Disability + Mother + Special Teacher			1								1	6.7
Father + Father of Young Children without Disability			1								1	6.7
Mother of a Young Child with Disability + Mother of a Young Child without Disability	1	2									3	20.0
Number of Papers	3	6	2	1	2	1	0	0	0	0	15	100

### 3) 상관연구

#### (1) 주제에 따른 분석

상관연구는 두 가지 이상의 변인 사이에 어떠한 규칙이 있는지를 알아내는 연구로, 장애유아 부모 관련 논문들 중 이 연구 유형을 변인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Table 3-12>와 같다.

상관연구 유형의 논문은 전체 12편이었고, 이 중 부모의 스트레스 및 양육태도와 관련된 변인들을 알아보는 연구가 5편(41.7%), 장애유아의 정서 및 사회성과 부모와 관련된 다른 변인들과의 관계를 알아보는 연구가 4편(33.3%), 부모의 삶과 다른 변인간의 관계를 알아보는 연구가 2편(16.7%)이었다. 기타 장애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을 알아보는 연구가 1편(8.3%)이었다. 상관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삶이 다른 변인들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연구가 전체 논문 중 8편(66.7%)으로 가장 많았다. 장애유아의 정서 및 사회성과 부모와 관련된 다른 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는 연구가 4편이었는데, 이러한 부모의 특성이 장애유아의 정서나 사회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는 연구는 2014년부터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밖의 부모의 양육태도와 같은 특성들과 기타 다른 변인과의 관계를 알아보는 상관연구는 2017년 이후 거의 게재되지 않고 있다.

<Table 3-12> Analysis by Topic

Variables Related to Research Topic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Number of Papers	Ratio (%)
Social Support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attitude	1										1	41.7
Mother's Role Intelligence					1							1	
Father's participation in childcare			1	1	1							3	
Parental Burden	Quality of Life			1								1	16.7
Parental Role Intelligence					1							1	
Disabled Infant Temperament	Mother's Language Control Type		1									1	8.3
Interaction + Parenting stress	Emotion and Social Skill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1				1	33.3
Mother's Personality Traits					1							1	
Mother's Emotional Expression			1								1	2	
Number of Papers		1	3	2	4	0	0	1	0	0	1	12	100

(2) 연구 대상에 따른 분석

상관연구 유형의 논문을 연구 대상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Table 3-13>과 같다.

상관연구를 연구 대상에 따라 분석한 결과, 장애유아의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5편(41.7%)으로 가장 많았고, 장애유아 어머니와 아버지를 함께 연구한 경우가 4편(33.3%)이었다. 전체 12편의 상관연구 중 부모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9편(75%)인 셈이다. 나머지 3편의 논문의 경우는 장애유아의 어머니와 장애유아 본인, 혹은 비장애유아의 어머니를 함께 연구한 경우로 장애유아를 대상으로 한 경우는 2편(16.7%)이고 비장애유아의 어머니가 연구 대상이 된 경우는 1편(8.3%)이었다. 2016년까지는 연구 대상이 장애유아의 부모님만으로 한정되었는데, 이후의 연구는 이들만이 아니라 다른 연구 대상을 포함하여 진행되었다.

앞서 연구 주제에 따른 분석에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삶이 다른 변인들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연구가 전체 논문 중 8편(66.7%)으로 가장 많았다고 하였는데, 연구 초기 어머니에 집중되어 있었던 이러한 관심이 이후 범위를 넓힌 다른 대상에까지 범위를 넓힌 것으로 보인다.

<Table 3-13> Analysis According to Research Subject

Research Subject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Number of Papers	Ratio (%)
Mother of a Child with Disability	1	3	1								5	41.7
Mother + Father			1	3							4	33.3
Mother + a Child with Disability				1						1	2	16.7
Mother of a Child with Disability+ Mother of a Child without Disability							1				1	8.3
Number of Papers	1	3	2	4	0	0	1	0	0	1	12	100

**4) 질적연구**

장애유아 부모 관련 논문들 중 질적연구 유형의 논문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주제에 따른 동향**

먼저 이들 논문을 주제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Table 3-14>에 나타나 있다.

질적연구 유형의 논문들은 비교적 다양한 주제로 연구되었는데, 부모의 양육경험과 관련된 논문이 2편(18.2%), 아버지의 심리내적 갈등과 관련된 논문이 2편(18.2%), 초등학교 전이와 관련된 논문이 2편(18.2%)이었던 것을 제외하고 그 외의 논문들은 교육에 대한 기대, 장애유아의 자기결정에 대한 관점, 양육스트레스와 가족의 삶의 질, 발달재활서비스에 대한 요구, 아버지의 생애 등이 연구 주제로 각각 1편씩 게재되었다.

<Table 3-14> Analysis by Topic

Research Topic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Number of Papers	Ratio (%)
Expectations of Education		1									1	9.1
Perspectives on self-determination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1									1	9.1
Parenting Stress, Family Quality of Life			1								1	9.1
Developmental Rehabilitation Service				1							1	9.1
Transition to Elementary School					1			1			2	18.2
Parenting Experience			1				1				2	18.2
Father's Psychological Conflict				2							2	18.2
Father's life			1								1	9.1
Number of Papers	0	2	3	3	1	0	1	1	0	0	11	100

**(2) 연구 대상에 따른 분석**

질적연구 논문 11편을 연구 대상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Table 3-15>와 같다.



장애유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6편(54.6%)으로 가장 많았고,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그다음으로 3편(27.3%)이었다. 그리고 두 가정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 1편(9.1%), 장애유아어머니, 보육교사, 치료사가 연구 대상으로 참여한 연구도 1편(9.1%)있었다. 2017년까지는 부모만을 대상으로 질적연구가 이루어졌는데, 2019년부터는 연구 대상의 범위가 다른 가정과 교사나 치료사 등으로 확대되었다.

<Table 3-15> Analysis According to Research Subject

Research Subject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Number of Papers	Ratio (%)
Mother		2	2	1	1						6	54.6
Father			1	2							3	27.3
Parents of two Families							1				1	9.1
Mother + Childcare Teacher + Therapist								1			1	9.1
Number of Papers	0	2	3	3	1	0	1	1	0	0	11	100

5) 사례연구

사례연구는 특정 대상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연구하기 위하여 자료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집하고 분석하여 심층적으로 연구하는 것으로 이 연구 유형으로 연구된 장애유아 부모 관련 논문을 연구 주제에 따라 분류한 것은 <Table 3-16>이고, 연구 대상에 따라 분류한 것은 <Table 3-17>이다.

(1) 주제에 따른 분석

최근 10년간의 사례연구로 연구된 장애유아 부모 관련 논문은 모두 3편으로, 2016년에 가족지원-가정중재에 대한 청각장애유아 어머니의 사례연구가 있었고, 2020년에는 숲체험활동에 관한 사례연구가 게재되었으며, 2021년에는 청각장애유아 어머니의 책 읽기 특성에 관한 연구가 발표되었다.

<Table 3-16> Analysis by Topic

Subject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Number of Papers	Ratio (%)
Characteristics of book reading techniques of hearing mothers of hearing impaired children									1		1	33.3
Family support - Experience of a mother of a hearing-impaired child with family mediation				1							1	33.3
Forest experience activity with mothers of developmentally delayed children overexposed to video content								1			1	33.3
Number of Papers	0	0	0	1	0	0	0	0	1	0	3	100

**(2) 연구대상에 따른 분석**

사례연구의 연구 대상으로 모두 장애유아를 포함하는데, 장애유아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2020년에 1편 있었다. 이 경우는 장애유아와 부모가 함께 참여 활동으로 장애유아에게 전반적으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알아보는 연구이다. 장애유아와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2016년과 2021년에 1편씩 게재되어 모두 2편이었다.

**<Table 3-17> Analysis According to Research Subject**

Research Subject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Number of Papers	Ratio (%)
A Young Child with Disability+Mother				1					1		2	66.7
A Young Child with Disability								1			1	33.3
Number of Papers	0	0	0	1	0	0	0	1	1	0	3	100

**6) 문헌연구**

최근 10년간 발표된 문헌연구의 경우 모두 3편이 논문이 게재되었는데, 의사소통 기술 향상 관련한 부모지원 문헌연구가 2편(66.7%), 부모교육 관련 문헌연구가 1편(33.3%) 게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18> Analysis by Topic**

Subject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Number of Papers	Ratio (%)
Parental Support to Improve Communication Skills	1	1									2	66.7
Literature Review Related to Parent Education			1								1	33.3
Number of Papers	1	1	1	0	0	0	0	0	0	0	3	100

**7) 인과비교 연구**

인과비교연구는 집단 간 나타나는 차이를 설명하는 변인을 찾는 것이다. 이 연구 유형의 논문은 최근 10년간 2편이 게재되었다. 인과비교연구 2편의 논문을 각각 연구 주제와 연구 대상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Table 3-19>와, <Table 3-20>이다.

먼저 연구 주제를 살펴보면, 한 편은 부모의 양육태도 및 양육부담감이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것으로 2017년에 게재되었고, 또 다른 한 편은 어머니의 인식이 장애유아의 식습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연구로 2022년에 게재된 논문이다.

연구 대상의 경우 모두 장애유아의 어머니와 비장애유아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다.

<Table 3-19> Analysis by Topic

Subject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Number of Papers	Ratio (%)
Family health according to parenting attitudes and parenting burden of parents of children without Disability and parents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elays					1						1	50.0
Mother's perception of influence on eating habits of a Child with Disability and a Child without Disability										1	1	50.0
Number of Papers	0	0	0	0	1	0	0	0	0	1	2	100

<Table 3-20> Analysis According to Research Subject

Research Subject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Number of Papers	Ratio (%)
Mother of a Child with Disability and a Child without Disability					1					1	2	100
Number of Papers	0	0	0	0	1	0	0	0	0	1	2	100

8) 개발연구

최근 10년간 게재된 장애유아 부모 관련 연구 중 개발연구 유형의 논문은 1편의 논문이 유일하다. 발달장애영유아 아버지의 양육 참여를 돕기 위한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ies)개발에 관련한 것으로 2019년에 발표되었다.

<Table 3-21>, <Table 3-22>에 주제와 연구 대상이 나타나 있다.

(1) 주제에 따른 분석

<Table 3-21> Analysis by Topic

Subject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Number of Papers	Ratio (%)
ICT development for father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infants and toddlers to participate in parenting							1				1	100
Number of Papers	0	0	0	0	0	0	1	0	0	0	1	100

(2) 연구대상에 따른 분석

이 연구는 아버지의 양육 참여를 돕기 위한 것인 만큼 장애유아와 어머니, 교사, 행정가, 전문가가 연구 대상에 포함되었다.

<Table 3-22> Analysis According to Research Subject

Research Subject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Nmber of Papers	Ratio (%)
Mother + a Child with Disability + Teacher + Inclusive daycare center director + Expert							1				1	100
Number of Papers	0	0	0	0	0	0	1	0	0	0	1	100

#### IV. 논의 및 제언

2013년에서 2022년까지 최근 10년간 학술지에 게재된 장애유아 부모 관련 논문 69편을 분석한 결과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도별 연구 동향을 분석한 결과 2013년에서 2017년까지 5년 동안 게재된 논문은 모두 51편으로 전체 논문의 74%에 해당하는 논문이 이때 발표되었으나, 이후 2018년에서 2022년에까지 5년 동안 게재된 논문은 모두 18편으로 전체 논문의 26%에 그쳤다. 특히 2013년도와 2016년 사이에 장애유아의 부모 관련 논문들이 많이 발표되었고, 2021년과 2022년 사이에는 발표된 논문이 적었다. 이것은 장애유아 부모 관련 연구가 최근에는 저조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지경과 서보순(2021)은 특수영유아 부모 관련 국내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였는데, 역시 마찬가지로의 결과를 보였다.

이런 결과가 나타난 원인 중 하나는 교육부의 계획과도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2013년에서 2017년까지는 교육부에서 발표한 4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2013~2017년)에 해당하는 시기로, 이 시기에는 장애유아 초등학교 입학 적응 지원이 강조되었고, 2008년부터 도입된 장애유아 의무교육제도의 확충에 따라 장애유아 교육을 위한 학부모 지원 확충도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 때문에 장애유아의 교육에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아울러 장애유아의 부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관련 연구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연구의 활성화는 정책적인 부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최근 장애유아 부모 관련 연구가 저조한 것은 관련 시행 부족으로 연구자의 관심이 낮아진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장애유아 부모 관련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애유아의 교육에 대한 정책뿐만 아니라 장애유아의 부모를 위한 부모 교육 또는 부모 지원에 대한 정책의 보완이 필요하다. 심솔비와 이병인(2021)은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의 교육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정책 입안자, 전문가와 관리자, 부모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장애유아의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

행할 때에는 정책 입안자와 전문가의 관점에서만이 아니라 교사, 관리자, 양육자 등 실제 장애유아와 접촉하는 사람들과의 소통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장애유아의 교육은 교육기관과 같은 교육 현장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가정과의 연계(서규원, 조윤경, 2021)가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 현장의 내실화도 필요하지만, 장애유아의 경우 부모와의 상호작용 시간이 길기 때문에 장애유아와 상호작용하는 부모의 의견이 반영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고, 교육 지원에 부모에 대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지원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10년간 발표된 장애유아 부모 관련 논문의 75.3%는 『유아특수교육연구』, 『특수아동교육연구』와 같은 장애관련 논문이 주로 게재되는 특수교육 전문 학술지에서 발표되었다. 그러나 장애유아의 교육은 현재 통합교육이 활성화(유현주, 김자경, 2023; 이소현, 윤선아, 이수정, 박병숙, 2019)되고 있으므로 특수교육에만 한정되어서는 안 되고 교육계의 전반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또한 장애유아를 중재할 때는 다학문적 팀접근이 이루어지므로 의료 분야 등 다른 학문 영역에서의 관심도 수반되어야 한다(김설아, 김은경, 2019). 그러므로 장애유아 부모 관련 연구들이 보다 다양한 학술지에 논문이 게재되도록 하여 다른 학문 영역의 연구자들이 장애유아의 교육에 관심을 갖도록 하고, 이로써 연구의 범위가 학제간 연구로 확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최근 10년간 장애유아 부모 관련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연구 방법은 실험연구였고, 그 다음으로 조사연구, 상관연구, 질적연구 등의 순이었다. 문헌연구, 사례연구, 인과비교연구, 개발연구와 같은 연구 방법은 많이 사용되지 않았고, 대부분의 연구가 실험연구나 조사연구와 같은 몇몇의 연구 방법에 편향되어 있는 경향을 보였다. 이병인(2019)은 장애유아만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았으나, 특수교육대상자 가족과 관련된 국내와 국외의 연구 동향을 비교 분석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도 국내에서는 조사연구와 실험연구 중심의 양적연구가 가장 많이 수행되었다고 하였다. 이보다 앞서 김영표와 강종구(2017)도 장애아동의 부모 관련 연구의 경우 조사연구와 실험연구가 다수였다고 하였고, 김미영(2020) 역시 장애 위험 및 장애영아 관련 국내 연구 동향 분석에서 조사연구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고 하였다. 기존 연구의 대상 연령대는 영아, 유아, 아동 등 차이가 있었지만, 장애 학습자 관련 연구들이 조사연구와 실험연구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연구 동향을 보이는 것은 동일하다.

실험연구나 조사연구는 양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해석하는 방법으로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거의 양적연구에 편향되어 있었던 셈이다. 그러나 이제는 양적연구 중심 보다는 연구 방법을 달리하여 시각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조현근(2019)은 유아특수교육 현장에서 질적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하며, 질적연구에서도 근거이론이나 현상학적 접근, 생애사 등 다양한 접근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질적

연구의 자료수집 방법에서도 심층 면담뿐 아니라 관찰을 통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지금까지 양적인 자료 수집에 의해서 장애유아의 부모와 관련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어 왔다면 앞으로는 질적인 자료 수집을 통한 현상에 대한 이해와 통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장애유아의 부모가 어떠한 경우에 행복해하고 좌절하는지, 장애유아와는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장애유아에게 직접적으로 중재를 실시하면서 무엇을 경험하는지(박소영, 백종남, 홍사훈, 이정윤, 백상수, 2020)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노진아, 이규옥, 정길순, 육성희(2009), 조현근과 이병인(2014), 이병인(2019)의 연구에서도 연구의 편향은 다양화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장애유아의 특성에 따라 부모의 양육 경험은 다양하므로(이은영, 김은석, 2022) 양적인 자료의 수집에 따른 연구 방법뿐 아니라 질적인 자료의 수집에 근거한 연구 방법(오혜정, 2016)도 고루 사용하여 이를 분석하고 궁극적으로는 장애유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모의 태도나 자녀에 대한 인식은 어떠해야 하며, 적절한 양육 방법은 무엇이고 어떻게 부모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지 제안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연구 방법별 세부 항목은, 먼저 실험연구를 독립변인, 종속변인, 연구 대상, 중재 실시 회기, 중재 실시 장소, 중재 실시자에 따라 분석하여 살펴보았다. 독립변인으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사용된 경우가 7편(31.8%)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놀이지원, 언어중재의 순이었다.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독립변인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은 이를 통해 부모의 양육 행동 등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종속변인은 사회적 상호작용과 양육효능감 또는 양육스트레스를 함께 살펴보는 연구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장애유아의 사회적 상호작용 행동의 변화를 살핀 연구와 어머니의 역량 강화, 양육효능감, 양육 행동 변화를 살핀 연구 등이 있었다. 장애유아의 사회적 상호작용 행동 변화가 단독 또는 다른 변인과 복합적으로 사용된 연구를 모두 더하면 전체 실험연구의 절반가량이었는데, 이는 장애유아의 발달을 위해서는 부모와 장애유아간의 상호작용이 중요하고(이후민, 박지연, 2020), 상호작용의 질이 장애유아의 발달의 질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서은희, 이미숙, 2012)이다. 그러므로 부모와 장애유아간의 상호작용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중재 방법들이 시도되었는데, 부모교육 프로그램이나 부모 지원 프로그램이 가장 많이 시도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아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 상호작용이 중요하므로 상호작용은 가장 기본적으로 향상시켜야 하는 것이지만, 종속변인으로 상호작용에만 집중된 경향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인지 발달, 신체 발달, 언어 발달 등 다른 부분으로도 종속변인을 확장하고, 또한 부모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조여진, 정경희, 2016; 이금진, 2010)의 개발이라든지 요즘처럼 SNS나 앱 또는 원격시스템을 통해 부모교육(김선경, 송유하, 2020)이나 부모 코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지원 방법에 대한 모

색이 필요하다. 김선경과 송유하(2020)는 자폐범주성 장애유아의 부모가 원격 교육을 통해 자녀의 교육이나 중재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한 국외 연구들을 소개하고 국내에서도 장애유아의 부모를 위해서 원격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지금은 공학의 발달이 두드러지는 시기이므로 이에 발맞추어 교육에서도 여러 가지 공학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부모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실험연구를 진행할 필요도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제간 융합연구가 필요하며, 새로운 시도에 대한 사례연구 그리고 새로운 프로그램에 참여한 부모들의 경험을 들어보는 질적연구도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면 그 구체적 결과 자료를 근거로 부모에게 보다 나은 지원을 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실험연구에서의 연구 대상은 장애유아 어머니와 장애유아인 경우가 11편(50%)이고 장애유아의 부모만인 경우가 6편(27.3%)이었다. 그리고 장애유아 아버지와 장애유아를 연구대상으로 한 연구는 최근 10년간 단 1편(4.6%)만 수행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연구는 대부분 장애유아의 부모가 연구 대상이 되고, 그 결과 부모의 변화뿐 아니라 장애유아의 변화를 살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장애유아 부모 관련 연구이지만, 연구 대상에 장애유아가 함께 참여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실험연구를 중재 실시 장소에 따른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치료실에서 중재를 실시한 경우가 7편(31.8%)으로 가장 많았고, 가정에서 중재가 실시된 경우는 5편(22.7%)이었으며, 가정과 더불어 유치원과 같은 교육기관에서 중재를 실시한 경우는 3편(13.6%)이었는데, 가정과 유아 교육기관에서 함께 프로그램을 실시한 경우는 비교적 최근인 2019년도에 들어서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의 논문들은 대체로 유아 교육기관에서 부모에게 부모교육을 실시한 후 가정에서 부모가 중재를 실시한 경우였다(김도경, 김향자, 2019; 김윤정, 최윤희, 박나리, 2021; 최지선, 이소현, 2017).

중재 실시자는 14편(63.6%)이 연구자였고, 4편(18.2%)은 어머니였으며, 다른 4편(18.2%)은 연구자와 어머니(18.2%)가 같이 실시한 경우였다. 장애유아의 교육에서는 전문가와 부모간의 연계가 중요하므로 프로그램에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연구가 더 활성화 되어야 한다. 더군다나 부모가 지원을 받아 가정에서 중재 프로그램을 실시할 경우 양육에 자신감을 갖게 된다는 연구(오혜정, 2016)도 있었으므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나 부모 지원 프로그램을 통하여 가정에서 부모들이 직접 중재할 수 있는 연구를 더 활성화하여 중재 효과를 살펴보고, 그 결과 장애유아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중재들을 탐색하여 이러한 관련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연구도 이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나 부모 지원 프로그램의 내용도 다양화 되어야 하고, 웹이나 앱을 활용하는(신문자, 이경재, 이수복, 2019) 등 방법적인 면에 있어서도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

조사연구에서는 연구 주제가 다양하게 나타났다. 부모의 양육효능감, 양육스트레스

그리고 부모의 행복감과 관련된 내용의 연구가 조사연구 15편 중에서 7편(46.6%)으로 대다수였지만, 그 외의 주제들은 특수교육지원센터와 관련된 내용, 장애유아 의무교육 활성화 방안, 발달지체 유아의 수 개념 지도 등 다양했다. 조사연구의 연구 대상은 장애유아 부모만을 연구 대상으로 한 경우는 모두 6편(40%)이었고, 특수교사가 포함된 경우가 4편(26.7%), 장애유아의 부모 중에서 어머니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아버지도 연구 대상이었던 경우가 1편(6.7%) 있었다. 이처럼 장애유아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많은 반면, 장애유아의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연구 전체 12편의 논문 중 7편(58.3%)의 논문은 사회적 지지나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 태도와 관계, 부모의 양육부담이나 역할기능이 삶의 질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는 연구였다. 부모와의 상호작용, 부모의 성격 특성, 그리고 부모의 정서 표현이 장애유아의 정서 및 사회성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는 연구도 4편(33.3%)이 있었다. 특히 연구 대상의 경우 장애유아의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5편(41.7%)으로 가장 많았는데, 어머니가 자녀에게 보이는 태도와 장애유아의 사회성이나 정서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살핀 연구보다, 부모의 양육태도나 부모의 삶의 질이 어떤지를 살핀 연구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상관연구 연구자들이 장애유아 부모의 양육태도나 부모의 삶의 질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와 관련된 변인들에 집중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궁극적인 귀결점은 장애유아와 관련이 있으므로 향후 연구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장애유아의 부모가 갖는 삶에 대한 만족도가 장애유아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것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부모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윤선오, 김우호, 2015; 정서형, 박지연, 2016)을 탐색하여 이를 지원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한편 조사연구, 실험연구, 상관연구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양육스트레스 변인이 나타났다는데,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는 부모의 양육행동에도 영향을 미치고(김미숙, 문혁준, 2005), 장애유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백수진, 안성우, 2019) 주요 요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연구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양육스트레스는 유아기 아동의 어머니에게서 더 많이 나타난다고 하므로(김세루, 홍지명, 홍혜경, 2010; 최정혜, 2018), 장애유아의 긍정적인 발달을 위해서는 양육스트레스 관련 변인들을 탐색하여 자녀가 유아기일 때부터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선행 연구에서 장애유아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안영혜, 홍순옥, 홍경자, 2016), 양육 지원 프로그램(김지원, 박지연, 2018), 문제행동 코칭프로그램(김성화, 2017) 등이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소개되었다. 또한 박예선(2019)은 장애유아 어머니의 양육 행동, 사회적 지지, 양육효능감이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런 영향 관계를 고려



한 부모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질적연구의 경우 연구 주제 면에서 다양한 경향을 보였다. 부모의 양육 경험과 관련된 논문, 아버지의 심리내적 갈등과 관련된 논문, 초등학교로 전이와 관련된 논문이 각 2편(18.2%)인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5편(45.5%)의 논문의 주제는 장애유아의 교육에 대한 기대, 장애유아의 자기결정에 대한 관점, 양육스트레스, 발달재활서비스에 대한 요구, 장애유아 아버지의 생애 등으로 주제가 겹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연구 대상은 장애유아 어머니인 연구가 6편(54.6%)이었고, 장애유아 아버지인 연구가 3편(27.3%)이었다. 양적연구들에 비하여 장애유아의 아버지가 연구 대상인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애유아의 아버지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형편이다. 장애유아의 양육 경험에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관점은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다. 따라서 조현근(2019)의 연구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질적연구에서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더욱 활성화하여 어머니와 아버지의 자녀 양육에 대한 경험과 관점을 비교하는 등 연구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

질적연구를 제외하고 다른 유형의 연구에서 장애유아 아버지만을 연구대상으로 한 경우는 상관연구와 인과비교연구·사례연구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있더라도 매우 적었다. 이는 연구자들이 장애유아 양육에서 아버지의 역할을 크게 보지 않는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Lopez et al, 2019). 김정연과 윤형준(2013)은 장애유아의 아버지가 양육에 참여함으로써 자녀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 연구 분야에서 이에 대해 덜 다루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이은영과 김은석(2022)은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고 하였다. 어머니가 육아를 거의 전담하다시피 했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아버지들의 역할도 중요해졌고, 특히 장애유아의 교육에서는 부모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따라서 장애유아의 아버지가 양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연구도 절실하게 요구된다.

또한 장애유아의 교육에서 유아 교육기관과 가정과의 연계, 학제간의 연계 및 융합 연구의 중요성, 공학의 도입 등을 생각할 때, 지금까지의 연구되어 온 연구 주제를 더 확장할 필요가 있으며, 연구 방법도 실험연구나 조사연구 중심의 양적연구와 함께 부모들이 경험을 이해하고, 장애유아와 부모가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기 위해서 참여 관찰 등 질적연구 방법을 활용한 연구도 활성화되어야 한다. 다학문간 팀접근을 통한 중재(이선희, 2022)를 위해서는 연구 대상도 부모와 협력하여 장애유아 중재에 참여하는 유아특수교사, 행정가, 치료사, 관련 전문가들에게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그들이 부모와 협력하여 장애유아를 지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를 탐색하고 부모가 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하여 이에 따른 지원 방법의 모색도 필요하다.

## 참고문헌

- Ahn, E. J. (2015). A Literature Review on Parent Training of the Children with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Journal of Emotional & Behavioral Disorders, 31*(4), 203-225.  
[안의정 (2015). 정서 및 행동 문제를 가진 유아의 부모교육에 관한 문헌연구. **정서·행동장애연구, 31**(4), 203-225.]
- Barton, E., & Fetting, A. (2013). Parent-Implemented Interventions for you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Journal of Early Intervention, 35*(2), 194-219.
- Bogdan, R., & Biklen, S. (2007). *Qualitative Research for Education*. New York: Pearson Education.
- Chung, K. S., Park, J. K., Choi, E. S., Seo, B. S., & Park, H. K. (2013). A study of factors which influence maternal happiness for mothers of you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mothers of young children without disabilities.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33*(1), 153-173.  
[정계숙, 박재국, 최은실, 서보순, 박희경 (2013). 장애 유아, 비장애 유아 어머니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유아교육연구, 33**(1), 153-173.]
- Choi, J. H. (2018). A Study on the Child-Rearing Values of Parents in Taking Care of Their Young Children. *Korean Journal of Contemporary Education, 30*(2), 131-146.  
[최정혜 (2018). 유아기자녀를 둔 부모의 자녀양육관에 대한 소고. **현대교육연구, 30**(2), 131-146.]
- Choi, J. S., & Lee, S. H. (2017). Responsive Communication Intervention Based on Connection of Preschool and Home.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17*(2), 79-100.  
[최지선, 이소현 (2017). 유치원-가정 연계 반응적 의사소통 중재가 중도·중복장애 유아와 어머니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유아특수교육연구, 17**(2), 79-100.]
- Han, J. K., Park, J. K., & Kim, Y. M. (2011). The Study on the Parenting Characteristics of Parents with Disabled and Normal Preschoolers. *Korean Journal of Physical, Multiple, & Health Disabilities, 54*(2), 235-257.  
[한주경, 박재국, 김영미 (2011). 장애유아와 일반유아 부모의 양육특성에 관한 연구.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54**(2), 235-257.]
- Hyassat, A. (2016). The voice of Jordanian parents of you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on involvement in their children's educational services. *International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31*(3), 1-26.
- Je, M. H., Lee, B. I., & Kim, M. S. (2020). Research Trends in Early Childhood Interventions Using Single-Subject Designs: Before and After the Act on Special Education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2007).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20*(2), 153-191.  
[제민희, 이병인, 김미성 (2020). 영·유아 조기중재 관련 단일대상연구 동향 분석: 장애인

-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007) 이전과 이후 비교. **유아특수교육연구**, 20(2), 153-191.]
- Jo, H. G. (2019). A Review of Trends and Future directions in Qualitative Research related to Families of Infant & You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With a Special Reference to Korean Special Education Peer-Reviewed Journal Articles Published from 2007 to 2018-.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19(4), 71-101.
- [조현근 (2019). 장애 영·유아 가족 질적 연구의 동향과 과제 -2007~2018년까지 발간된 특수교육 전문 학술지 중심으로-. **유아특수교육연구**, 19(4), 71-101.]
- Jo, H. G., & Lee, B. I. (2009). An Analytical Study on Research Trends in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A Review of Korean Special Education Journal Articles, Published Between 1994 and 2007-.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9(2), 1-42.
- [조현근, 이병인 (2009). 유아특수교육 연구 방향성 탐색을 위한 연구 동향 분석 -1994년부터 2007년까지 특수교육 전문 학술지 중심으로-. **유아특수교육연구**, 9(2), 1-42.]
- Jo, H. G., & Lee, B. I. (2014). A Comparative Analysis on Research Trends Related to Familie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 With a Special Reference to Special Education Peer-Reviewed Journal Articles in Korean and USA -.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14(2), 99-127.
- [조현근, 이병인 (2014). 장애아동 가족 관련 국내·외 연구의 동향 비교 분석: 한국과 미국의 특수교육 전문 학술지를 중심으로. **유아특수교육연구**, 14(2), 99-127.]
- Joe, Y. J., & Jung, K. H. (2016). The Effect of parents-centered language intervention on the Communicative behaviors and communication breakdown of infant with Language Delay.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6(3), 199-218.
- [조여진, 정경희. (2016). 부모중심 언어중재가 언어발달지체 유아의 의사소통행위 및 의사소통단절에 미치는 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3), 199-218.]
- Jung, S. H., & Park, J. Y. (2016). Effects of a parent education program on special education related services on parenting efficiency, family empowerment, and family quality of life in parents of young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elay.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16(1), 89-108.
- [정서형, 박지연 (2016).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에 대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발달지체유아 부모의 양육효능감, 가족역량강화, 가족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유아특수교육연구**, 16(1), 89-108.]
- Kang, H. W., & Park, J. Y. (2011). Effects of Parenting Support Program for Parent Empowerment on Parenting Efficacy and Parent-Child Interactions in Families of You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12(1), 1-25.
- [강혜원, 박지연 (2011). 부모역량강화를 위한 양육지원 프로그램이 장애유아 부모의 양육 효능감과 부모-유아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2(1), 1-25]
- Kim, D. K., & Kim, H. J. (2019). The Effects of Parents Education Using the Photo-Centered Class Note on the Communication between Young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elays and Their Mothers.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ies*, 21(2), 117-141.

- [김도경, 김향지 (2019). 사진 중심 알림장을 활용한 부모교육이 발달지체유아와 어머니의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 *지적장애연구*, 21(1), 117-141.]
- Kim, G. S., & Shin, J. M. (2023). Semantic network analysis on difficulties of parents of preschooler with disabilities using big data. *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18(2), 5-27.
- [김길숙, 신지민 (2023). 빅데이터에 나타난 장애 유아 부모의 어려움 의미연결망 분석. *육아지원연구*, 18(2), 5-27.]
- Kim, J. E., & Choi, Y. H. (2018). The effect of mother implemented social-communication training on engagement of a child with nonverbal autism and empowerment experience of mother.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18(1), 25-53.
- [김지은, 최윤희 (2018). 어머니가 실행하는 사회-의사소통 훈련이 무발화 자폐 범주성 장애유아의 놀이참여행동과 어머니 역량강화에 미치는 영향, *유아특수교육연구*, 18(1), 25-53.]
- Kim, J. W., & Park, J. Y. (2018). Effects of parenting support program for mothers of young children at risk of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 based on problem solving strategies on mothers' perception of child impact on family, parenting efficacy, parenting stress, and mother-child interactions.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18(1), 99-124.
- [김지원, 박지연. (2018). 문제해결전략중심 양육지원 프로그램이 정서·행동장애 위험유아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인식, 양육 효능감, 양육 스트레스, 어머니-유아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유아특수교육연구*, 18(1), 99-124.]
- Kim, J. Y., & Yun, H. J. (2013). A Study on the Parenting Experiences of Father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Special Education Research*, 12(3), 333-356.
- [김정연, 윤희준 (2013). 장애를 가진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양육 경험 연구. *특수교육*, 12(3), 333-356.]
- Kim, K. H., & Kim, C. G. (2013). Smart Learning in Special Education: A Review of Research in Korean Journals 2000 to 2012. *Korea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48(2), 191-218.
- [김건희, 김창걸 (2013). 스마트러닝 연구동향 분석을 통한 특수교육에서의 스마트러닝 = 2000-2012년 국내 논문 중심으로. *특수교육학연구*, 48(2), 191-218.]
- Kim, S. A., & Kim, E. K. (2019). The Effects of the Pivotal Response Teaching (PRT) through Collaborative Team Approach on the Social Communication Behavior of Children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s.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35(1), 15-42.
- [김설아, 김은경 (2019). 협력적 팀 접근을 통한 중심반응교수(PRT)가 자폐성장애 유아의 사회적 의사소통 행동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논총*, 35(1), 15-42.]
- Kim, S. H. (2017). The Effect of Parent Coaching Program for Young Child Problematic Behavior on Mothers' Parenting Stress and Young Child's Problematic Behavior. *JOURNAL OF EMOTIONAL & BEHAVIORAL DISORDERS*, 33(1), 179-198.
- [김성화 (2017). 유아문제행동 코칭프로그램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정서·행동장애연구*, 33(1), 179-198.]

- Kim, S. K., & Song, Y. H. (2020). A Review of Studies Related to Intervention via Teleeducation with Parents of Children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s. *The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n Developmental Disabilities*, 24(4), 141-166.  
[김선경, 송유하 (2020). 원격 교육을 기반으로 자폐 범주성 장애 아동의 부모가 참여한 중재 관련 국외 연구 분석. *발달장애연구*, 24(4), 141-166.]
- Kim, S. R., Hong, J. M., & Hong, H. K. (2010). The Relations among Mother's Behavior toward Rearing, Mother's Rearing-stress and Self-esteem of Young Children. *Journal of Children's Media & Education*, 9(2), 113-132.  
[김세루, 홍지명, 홍혜경 (2010).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 *어린이미디어연구*, 9(2), 113-132.]
- Kim, Y. J., Choi, Y. H., & Park, N. R. (2021). The Effect of Untact Parent Support Programs on Mother's Parenting Efficiency and Social Skills of Infants and Interaction of Developmental Delay.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21(1), 115-139.  
[김윤정, 최윤희, 박나리 (2021). 스마트 알림장을 활용한 비대면 놀이매개 부모지원 프로그램이 부모효능감과 일반유아의 사회성 기술, 발달지체유아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유아특수교육연구*, 21(1), 115-139.]
- Kim, Y. P., & Kang, J. G. (2017). A Recent Trend on the Studies related to Parents of Child with Disabilitie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7(2), 497-504.  
[김영표, 강종구 (2017). 장애아동의 부모 관련 연구들의 최근 동향.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7(2), 497-504.]
- Kwak, H. Y., Kim, S. H., & Lee, B. I. (2022). An analysis on research trends related to families of young children with special needs using text mining analysis: With a special reference to the Korean professional journal articles(2003 - 2021).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38(3), 119-139.  
[곽희연, 김숙향, 이병인 (2022).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특수교육대상영유아 가족 관련 연구 동향분석: 2003년~2021년 국내 학술지 논문을 중심으로. *특수교육논총*, 38(3), 119-139.]
- Lee, B. I. (2019). An Analysis on Research Trends Related to Families of Individuals with Special Needs -With a Special Reference to the Special Education Peer-Reviewed Journal Articles in Korea(2007~2018) and USA(2004~2018)-.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19(2), 1-33.  
[이병인 (2019). 특수교육대상자 가족 관련 국내·외 연구 동향 분석 -한국(2007~2018)과 미국(2004~2018)의 특수교육 전문학술지를 중심으로-. *유아특수교육연구*, 19(2), 1-33.]
- Lee, E. Y., & Kim, E. S. (2022).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parenting stress of parents who have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 Research trends and future challenges. *The Korean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11(1), 81-100.  
[이은영, 김은석 (2022).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

- 동향과 미래 과제 개관. **발달지원연구**, 11(1), 81-100.]
- Lee, G. J. (2010). The Effects of a Small Group Parent Involvement Program for The Abilities of Syntax of Language on Developmentally Delayed Young Children.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5(2), 47-64.
- [이금진 (2010). 발달지체 영유아의 가족참여 모델이 영유아의 구문론 발달에 미친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5(2), 47-64.]
- Lee, H. M., & Park, J. Y. (2020). Effects of the Internet-Based Play Coaching on Mothers' Responsive Interaction Behaviors and Social Interaction Between You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Their Mothers.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20(3), 57-82.
- [이후민, 박지연 (2020). 인터넷 카페를 활용한 놀이코칭이 어머니의 반응적 상호작용행동과 어머니-장애유아 간 사회적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유아특수교육연구**, 20(3), 57-82.]
- Lee, H. S., Lee, K. H., & Choi, S. K. (2005). A Case Study of Maternal Foster Experience Which Belongs to the Mothers Whose Children with Severe-Multiple Disabilities. *Korean Journal of Physical, Multiple, & Health Disabilities*, 46, 187-201.
- [이한선, 이경희, 최성규 (2005). 중증, 중복장애자녀의 조기발견, 진단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경험에 대한 사례 연구.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46, 187-201.]
- Lee, J. K., & Seo, B. S. (2021). Keyword Network Analysis of Domestic Research Trends related to Parents of Infants and Young Children with Special Needs.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21(4), 71-97.
- [이지경, 서보순 (2021). 특수영유아 부모 관련 국내연구의 키워드 의미연결망 분석. **유아특수교육연구**, 21(4), 71-97.]
- Lee, J. S. (2009). *Education · Psychology · Social Research Methodology*. KOYOOKBOOK.
- [이중승 (2009). **교육·심리·사회 연구방법론**. 교육과학사]
- Lee, S. H., & Park, S. Y. (2022). The effects of Multi-component Behavioral Intervention Support through Collaborative Team Approach on the Aggressive Behavior of a young child with Developmental delay : A Case Study. *Future Education Integrated Research*, 3(2), 3-28.
- [이선희, 박소영 (2022). 협력적 팀 접근을 통한 다요소 행동지원이 발달지체 유아의 공격행동에 미치는 영향. **미래교육통합연구** 3(2), 3-28.]
- Lee, S. H., Yoon, S. A., Lee, S. J., & Park, B. S. (2019). Current Status and Support Needs of Including Preschoolers with Disabilities: A Preliminary Study of Developing Preschool Inclusion Model.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19(1), 1-36.
- [이소현, 윤선아, 이수정, 박병숙 (2019). 특수교육대상유아 통합교육 현황 및 지원 요구: 통합유치원 운영 모델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유아특수교육연구**, 19(1), 1-36.]
- Lopez, S., McWhirter, C., Rosencras, M., Giuliani, R., & McIntyre, L. (2019). Father involvement with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elays. *Global Education Review*, 1(1), 40-62.

- Noh, J. A. (2014). Research Trends of Parent-Implemented Interventions for Young Children with Special Needs and Application of the WWC Standards: Single Case Studies. *The Journal of Special Children Education, 16*(2), 425-453.  
 [노진아 (2014). 장애 영유아를 위한 부모 참여 중재 연구의 동향 및 WWC 평가 지표에 의한 분석: 국내외 단일대상 연구를 중심으로. **특수아동교육연구, 16**(2), 425-453.]
- Noh, J. A. (2019). Analysis of Research Trends related to Young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elays through Keyword Network Analysis. *The Journal of Special Children Education, 21*(1), 249-269.  
 [노진아 (2019).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국내 발달지체 유아 관련 연구 동향 분석. **특수아동교육연구, 21**(1), 249-269.]
- Noh, J. A., Park, J. K., & Kim, E. R. (2013). Perceptions and Analysis on the Factors Influencing of Happiness for Parents of Preschoolers with Developmental Delays.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13*(4), 153-170.  
 [노진아, 박재국, 김은라 (2013). 발달지체유아 부모의 행복감에 대한 인식과 영향 요인 분석. **유아특수교육연구, 13**(4), 153-170.]
- Noh, J. A., Yi, G. O., Jung, K. S., & Yuk, S. H. (2009). A Review of Early Intervention/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Literature in Korea.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9*(1), 1-32.  
 [노진아, 이규옥, 정길순, 육성희 (2009). 국내 유아특수교육 관련 연구의 동향 분석 -창간호부터 2008년 6월까지 국내 유아특수교육 관련 전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중심으로-. **유아특수교육연구, 9**(1), 1-32.]
- Ministry of Education (2013). *The 4th ('13-'17) Special Education Development a Five-year Plan*. Sejong: Author.  
 [교육부 (2013). **제4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2013~2017)**. 세종: 저자.]
- Oh, H. J. (2016). An Qualitative Research on the Recognition and Experience of Parents of Young Children with Hearing-impaired for Family Support-Home Based Intervention. *The Journal of Special Children Education, 18*(4), 151-175.  
 [오혜정 (2016). 가족지원-가정중재에 대한 청각장애유아 어머니의 인식 및 경험에 관한 사례연구. **특수아동교육연구, 18**(4), 151-175.]
- Oh, H. J. (2008). The Effects of Parents Support-Home Based Intervention on the Communication Skills of Mothers of Infants with Hearing Impairments.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9*(1), 347-366.  
 [오혜정 (2016). 부모지원-가정중재가 청각장애 유아 어머니의 의사소통 기술 향상에 미치는 효과.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9**(1), 347-366.]
- Paik, S. J., & Ahn, S. W. (2019). The Influence of Parent-Child Interaction and Parenting Stress on Emotional Regulation of Infants with Hearing Impairment. *The Journal of Special Children Education, 21*(3), 291-319.  
 [백수진, 안성우 (2019). 부모-자녀 상호작용과 부모 양육스트레스가 청각장애유아의 정서 조절에 미치는 영향. **특수아동교육연구, 21**(3), 291-319.]

- Parette, H., Meadan, H., & Doubet, S. (2010). Supporting families of you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using technology. *Education and Training in Autism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45*(4), 552-565.
- Park, A. S. (2019). A Study on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Child-Rearing Stress of the Mothers with You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Th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Education Welfare, 6*(2), 93-103.  
[박애선 (2019). 유아기 장애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상담심리교육복지, 6**(2), 93-103.]
- Park, M. J., Chung, J. K., & Park, K. R. (2010). Developmental Changes of a Deaf Infant with Severe and Multiple Disabilities by Interactive Training Between Mother and Infant.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11*(3), 469-492.  
[박미정, 정재권, 박경란 (2010). 어머니와 유아의 상호작용훈련을 통한 농중증, 중복장애 유아의 전반적 발달 변화.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1**(3), 469-492.]
- Santos, M., & McCollum, J. (2007). Perspectives of Parent-Child Interaction in Filipino Mothers of Very Young Children with and without Disabilities. *Journal of Early Intervention, 29*(3), 243-261.
- Seo, E. H., & Lee, M. S. (2012). The Relationship between Activity Temperament and Self-Regulation Ability in Young Children : The Moderating Effects of Mother-Child and Teacher-Child Relationships. *Journal of Families and Better Life, 30*(2), 27-46.  
[서은희, 이미숙 (2012). 유아의 활동성 기질과 자기조절능력과의 관계: 어머니-유아 관계, 교사-유아 관계의 중재효과. **가정과삶의질연구, 30**(2), 27-46.]
- Seo, K. W., & Cho, Y. K. (2021). The Effects of Family Related Positive Behavior Support Intervention on Challenging Behaviors and Social Interaction of Preschoolers with Disabilities at Indoor Activities in Inclusive Classes. *Special Education Research, 20*(1), 27-57.  
[서규원, 조윤경 (2021). 가정과 연계한 긍정적 행동지원 중재가 통합학급 실내놀이시간에 장애유아 문제행동과 사회적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 20**(1), 27-57.]
- Seong, T. J. & Si, K. J. (2014). *Research Methodology*. Seoul: Hakjisa.  
[성태제, 시기자 (2014). **연구방법론**. 서울: 학지사]
- Shin, M. J., Lee, K. J., & Lee, S. B. (2019). SLPs' Use and Needs Analysis on the Mobile Application Development of Stuttering Child-Parent Interaction Program. *Special Education Research, 18*(4), 31-52.  
[신문자, 이경재, 이수복 (2019). 말더듬아동-부모 상호작용 앱 개발을 위한 사용실태 및 언어재활사 요구조사. **특수교육, 18**(4), 31-52.]
- Waters, C., & Friesen, A. (2019). Parent experiences of raising a young child with multiple disabilities: The transition to preschool. *Research and Practices for persons with severe disabilities, 44*(1), 20-36.
- Yoon, S. O., & Kim, W. H. (2015). The Effect of Parenting Burden on Quality of Life of



Parent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 - Focusing on Mediating Effect of Family Resilience.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15(2), 133-149.

[윤선오, 김우호 (2015). 장애유아 부모의 양육부담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 - 가족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유아특수교육연구*, 15(2), 133-149.]

Yu, H. J., & Kim, J. K. (2023). Management of a Play-Based Curriculum in Inclusive Classes for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elays: Experiences and Perceptions of Teachers at Public Kindergartens.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39(2), 157-182.

[유현주, 김자경 (2023). 발달지체유아 통합학급에서의 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 공립유치원 통합학급 교사의 경험과 인식. *특수교육논총*, 39(2), 157-182.]

<국문 초록>

## 장애유아의 부모 관련 연구 동향 분석 - 국내 학술지를 중심으로 -

김 건 희

**[목적]** 본 연구는 장애유아의 부모 관련 연구의 동향을 살펴 분석한 것으로, 이를 통해 향후 장애유아의 부모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방법]** 연구 목적에 따라 2013년에서 2022년까지 발표된 국내 학술지 논문 69편을 선정하였고, 선정된 논문들을 연도별, 게재된 학술지별, 연구 유형에 따라 나누고 이를 다시 연구주제별, 연구대상별로 분석하였다. **[결과]** 분석 결과, 첫째, 2013년도와 2016년 사이에 장애유아의 부모관련 논문들이 많이 게재되었으나, 2018년도 이후부터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구 방법으로는 실험연구, 조사연구, 상관연구, 질적연구의 순으로 많이 사용되었고, 문헌연구, 사례연구, 인과비교연구, 개발연구를 사용한 논문은 적었다. 셋째, 연구 주제의 경우, 조사연구는 부모의 양육효능감, 양육스트레스 그리고 부모의 행복감과 관련된 내용의 연구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실험연구의 경우는 독립변인으로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놀이지원, 언어중재 순으로 많이 사용되었으며, 종속변인은 사회적 상호작용과 양육효능감 또는 양육스트레스 등이었다. 질적연구는 그 주제가 다른 연구에 비해 다양했다. 연구 대상들을 살펴보면 논문 69편 전체로 보아도 장애유아의 어머니만 단독으로 참여한 경우거나, 아버지가 함께 참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반면 아버지만 단독으로 연구대상에 참여한 경우는 5편(7%)에 그쳤다. 연구 유형에 따라 장애유아의 부모들과 함께 특수교사, 전문가, 장애유아, 비장애어머니, 비장애아버지가 포함되어 연구가 이루어진 경우도 있었지만 적은 편이었다. **[결론]** 장애유아 부모와 관련한 현 상황을 더 잘 이해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연구 주제와 영역을 확대하고 연구 유형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구 대상 역시 어머니 중심에서, 아버지뿐만 아니라 교사, 치료사 등 관련 전문가들도 포함시킬 것이 요구된다.

**주제어 :** 장애유아, 어머니, 아버지, 부모, 연구동향

논문 접수(Received): 2023. 08. 18. / 심사 시작(Examined): 2023. 08. 18. / 게재 확정(Accepted): 2023. 09. 15.